

북한이탈주민들의 복음화와 통일시대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탈북민 선교 자료집

* 탈북민 선교 자료집은 안성제일교회 (담임 이선진 목사)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탈북민 선교 자료집

발 행 일 2024년 8월 15일

발 행 인 태동화 목사 (선교국 총무)

편 집 인 이승현 목사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발 행 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전 화 02-399-4340

디자인·인쇄 디자인화소

* 비매품

북한이탈주민들의 복음화와 통일시대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탈북민 선교 자료집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발
간
사



태 동 화 목사
(선교국 총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감리교회 12개 연회와 6,700여 교회 그리고 120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리교회가 탈북민들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탈북민 선교 자료집을 발간한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국내 거주 탈북민의 숫자는 2010년 약 2만명에서 2024년 현재 3만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동포이며,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이 시대의 땅 끝인 북녘을 향한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할 선교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거주 탈북민들 중 약 4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교단을 초월하여 200명 가까운 탈북목회자, 탈북신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90여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졌고, 감리교회 안에도 7개의 탈북민 교회가 설립되어, 북한 출신 목회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간 화해모드가 조성된 이후, 2019년 역사

상 처음으로 남북미간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고, 2020년 6·15남북 공동선언 이후 통일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한반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데 이어, 한국 정부는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정부, 민간 차원의 교류는 전면 중단되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신냉전의 상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북한선교 사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탈북민교회와 탈북민 선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에 고정되어 있는 선교의 시선을 국내거주 탈북민에게 돌려야 합니다. 탈북민은 우리 곁에 이미 찾아온 북한동포이고, 장차 남과 북이 통일되기 이전에 먼저 한몸 이루어야 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미 많은 북한 출신 목회자들이 탈북민교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탈북민 선교 자료집에는 감리교회 안에 7곳의 탈북민교회와 탈북민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10곳의 교회, 기관을 소개합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자료집이 개교회와, 지방, 연회마다 보급되어 감리교회안에 탈북민 선교의 장이 열리고, 감리교회를 통해 대립과 분열로 갈라진 한민족이 하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부 선교국도 탈북민 선교 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탈북민 선교가 감리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 ● 차 ●

발간사 / 태동화 목사

I 탈북민교회 기본현황과 동행선교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탈북민교회 개요	11
2. 전국 탈북민교회 기본현황	12
3. 탈북민교회와 동역하는 몇 가지 제안	19

II 감리회 탈북민교회 - 7개 교회

1. 새터교회	26
2. 향연교회	28
3. 예수새민교회	30
4. 여명교회	33
5. 설만한물가교회	35
6. 예수마음교회	37
7. 회령교회	40

III 감리회 탈북민 선교 교회 / 기관

1. 안성제일교회	44
2. 인천평화교회	50
3. 은암선교교회	53
4. 진천교회 디딤돌 봉사회	55
5.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58
6.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61
7. 하늘꿈학교/사단법인 좋은씨앗	63
8. 사단법인 하늘우산	66
9.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감리교신학대학교 부설연구소)	71
10. 사단법인 탈북민 자립지원센터	76

I

탈북민교회 기본현황과 동행선교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탈북민교회 개요
2. 전국 탈북민교회 기본현황
3. 탈북민교회와 동역하는 몇 가지 제안

I 탈북민교회 기본 현황¹과 동행선교를 위한 제안



북한선교의 열매를 “북한사람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고 특정하고, 그 대상을 “북한 땅”이 아닌 “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 주변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북한선교의 열매들이 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3만여 탈북민들 중에 약 40%에 달하는 탈북기독인²들이 있다. 200명 가까운 탈북목회자, 탈북신학생이 있다. 전국적으로 9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졌다. “탈북민교회, 탈북민목회자, 탈북민성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한 열매인 것이다.

1) 2023년 6월 13일, 불씨선교회가 후원하고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장신대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2회 탈북민교회 통일준비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2)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최근 4년 간 발간된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국내 탈북민 기독교(개신교) 비율은 2020년 응답자 14,198명 중 41.4%, 2019년 응답자 13,479명 중 41.1%, 2018년 응답자 12,589명 중 41.4%, 2017년 응답자 11,765명 중 41.7%로 일관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1. 탈북민교회 개요

일반적으로 탈북민교회를 정의할 때, 담임목회자가 북한출신이거나, 성도 구성원 대부분이 탈북민인 교회 혹은, 남한출신 목회자가 국내 탈북민 사역을 주요 목표로 하여 개척된 교회를 통칭한다.

2023년 5월 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대략 9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설립되었다.³⁾ 1999년 정부부처 내에 세워진 특수한 교회⁴⁾를 제외한 실제적인 탈북민 교회는 2004년 북한출신 목회자에 의해서 4개, 남한출신 목회자에 의해서 2개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북한출신 목회자를 통해 57개, 남한출신 목회자를 통해 32개, 중국출신 목회자를 통해서 1개가 생겨났다. 현재는 전체 90개의 교회 중 18개가 사라지고(혹은 사역방향을 달리하고), 72개의 탈북민교회가 경기도 연천에서 제주도까지 남한 땅 전역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 탈북민교회 63%가 북한출신 목회자들에 의해 개척되었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개척된 19개의 탈북민교회 중에 17개 교회 담임자가 북한출신이다. 이중 65%가 여성이고, 65%가 전도사이다. 여성목회자에 의한 개척, 그리고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를 통한 개척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탈북여성 전도사들이 있다. 한편, 2020년대 초반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개 탈북민교회 개척은 대단한 숫자이다. 탈북민목회자들이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반증이다.

탈북민교회 내부적으로도 탈북민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남북한 성도들의 역할구분이 희미해지고,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형태로

3) 2000년 이전 2개, 2000년대 18개, 2010년대 51개, 2020년대 들어서 19개가 개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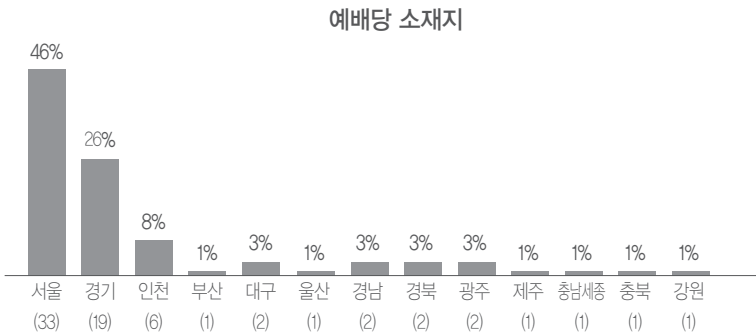
4) 입국 후 일정기간 정부기관에 머물면서 다니게 되는 제한된 교회(대성공사 평화교회, 하나원 하나교회).

발전하고 있다. 현재는 많은 탈북민교회들이 남북한출신 성도들의 하나 됨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교회사역이 변화하고 있다. 탈북민교회 역사가 이제 막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수많은 진통과 은혜의 흔적을 남기며 묵묵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2. 전국 탈북민교회 기본현황

2023년 5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72개의 탈북민교회가 탈북민 성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준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예배당 소재지, 소속교단, 담임목회자출신지역, 안수여부, 성별, 부교역자 및 향존직 등의 동역자 여부, 교세현황, 예배당형태, 재정상황, 담임목회자사례, 주요 사역과 목회비전 등을 살펴본다.

1) 예배당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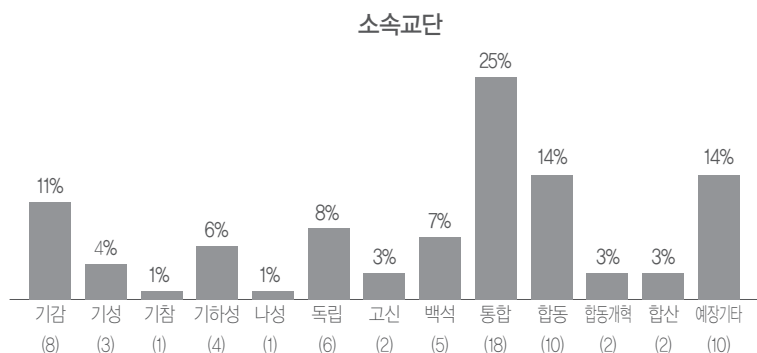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33개, 19개, 6개로 전체 80%의 교회가 수도권권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은 노원구와 양천구가 각각 5개로 가장 많고, 강서구 4개, 구로구 3개, 송파구 3개, 서대문구 2개, 영등포구 2개, 용산구 2개, 그리고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에 각각 1개

씩 위치해 있다. 경기도는 고양시 3개, 김포시 2개, 의정부시 2개, 광명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에 1개씩 있다. 인천은 남동구와 서구에 각각 2개, 부평구와 강화도에 각각 1개 있다. 그 외 경상권과 강원권은 대구, 경북, 경남에 각각 2개, 부산, 울산, 강원도에 각각 1개씩 있다. 전라제주권과 충청권은 광주 2개, 제주 1개, 충남세종 1개, 충북 1개가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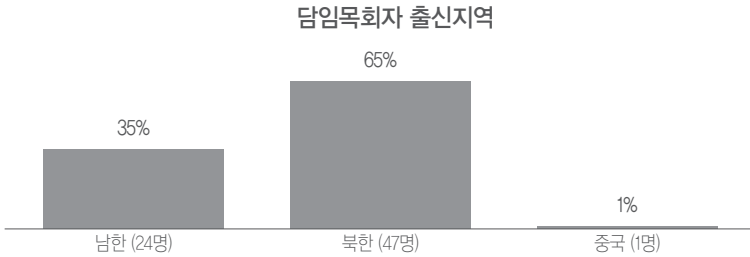
탈북민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탈북민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대비 교회 숫자는 수도권인 경우 서울 200명 당 1개, 인천 485명 당 1개, 경기 574명 당 1개, 경상권과 강원권은 대구 316명 당 1개, 울산 464명 당 1개, 경남 546명 당 1개, 경북 568명 당 1개, 부산 896명 당 1개, 강원도 911명 당 1개 전라제주권과 충청권은 광주 268명 당 1개, 제주 350명 당 1개, 충남세종 1790명 당 1개로 나타났다. 앞으로 탈북민교회가 새롭게 개척될 경우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2) 소속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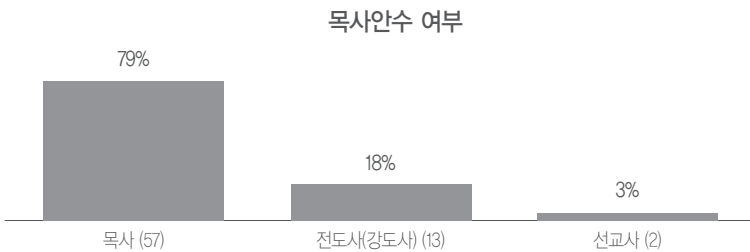
기독교대한감리회 8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4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3개, 기독교한국침례회 1개, 나사렛성결교회 1개, 독립교회 6개 등이 소속되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가 49개가 있다.

3) 담임목회자 출신지역



담임목회자 출신지역은 북한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남한 24명, 중국 1명으로 북한출신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수가 전체 60% 이상으로, 남한출신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숫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이들 가정은 북북, 북남, 북중, 남남, 남북, 남일, 중중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부부간 출신지역이 같다. 대략 20%가 부부간 출신지역이 다른 가정인데, 대부분 남북결합가정이다. 남북결합가정의 90%가 북한출신 목회자와 남한출신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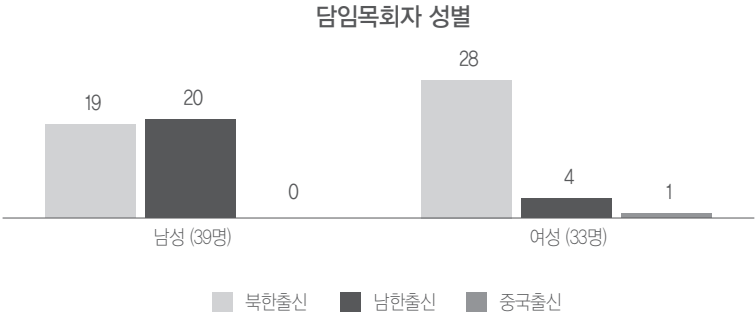
4) 담임목회자 안수여부



전체 72명 중, 목사 57명, 전도사(강도사) 13명, 선교사 2명이다. 남한출신 목회자의 경우는 선교사 1인을 제외한 전원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북한출신 목회자의 경우 47명 중 34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전자는 일반교회에서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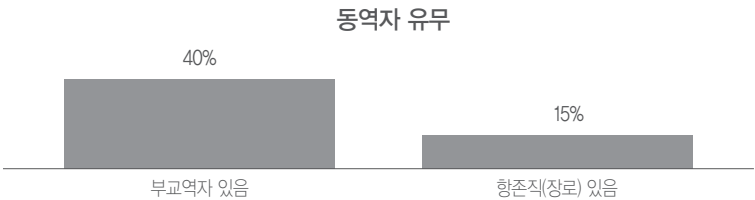
선교(통일선교부, 북방선교부) 혹은 탈북민 관련 사역을 섬기다가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독립해서 탈북민교회를 개척한 경우가 많은데 반해, 후자는 신대원 졸업과 동시에 혹은 재학 중에 개척한 경우가 많았다.

5) 담임목회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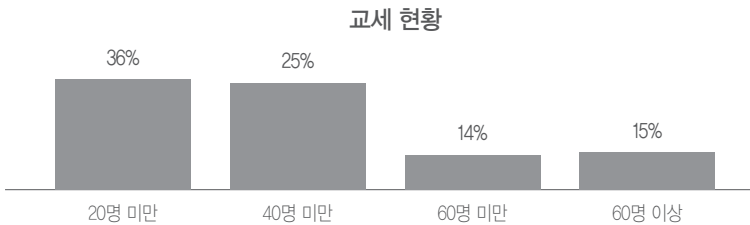
담임목회자의 성별은 남성 39명, 여성 33명이다.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남한출신의 경우 남성 20명, 여성 4명으로 절대다수가 남성이다. 반면, 북한출신의 경우 남성 19명, 여성 28명으로 여성 목회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국내 탈북민인구의 남녀 성비가 3:7이라는 점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탈북민목회 현장에는 여성리더십의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6) 부교역자 및 평신도사역자(장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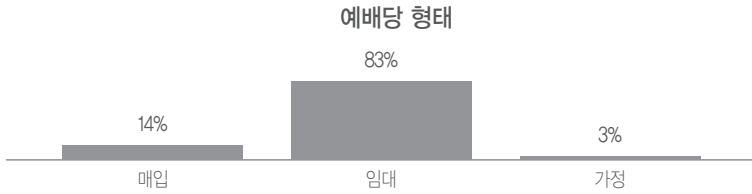
담임목회자의 협력자인 부교역자의 경우 있음이 40%로 절반 이상의 탈북민교회가 담임목회자 홀로 사역한다. 실질적인 평신도 사역자인 향존직(장로) 교인이 있는 교회는 전체 15% 수준이다. 탈북민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뿐 아니라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교육, 취업, 진로, 가정, 상담 등 전방위적인 사역을 감당해야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담임목회자 혼자 이 모든 것을 소화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함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 질 수 있는 동역자가 절실하다. 부교역자의 경우 교회 재정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의 유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7) 교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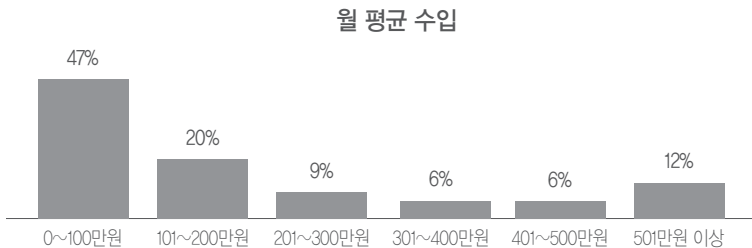
교세가 파악된 교회들의 성도 숫자는 성인 1,835, 어린이 524명, 총 2,359명이고, 평균 36명이다. 교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6개 교회까지 대략 추산하면, 전국 72개 탈북민교회 교인은 2,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탈북민성도는, 북남 간의 비율을 최대 80:20정도로 보면 2,000여명이 되고, 최소 60:40정도로 보면 1,600여명이 된다. 국내에서 신앙생활 하는 탈북민 숫자를 대략 1만 명으로 잡았을 때, 전체 탈북민 인구 중 16~20%가 탈북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8) 예배당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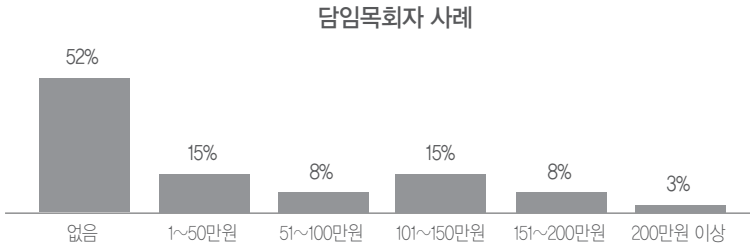
스스로 예배당을 매입한 교회가 9개,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2개, 그 외에는 월세나 반전세 혹은 무상으로 예배당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몇 탈북민교회들이 목회자가정에서 먼저 모여 공동체를 형성한 후 예배당을 얻어 나와 건강하게 목회하는 좋은 선례들이 있다. 2004년 탈북민교회가 처음 개척된 이후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전체 10% 정도가 자립하고 자체 예배당을 구입하기도 했으나(상당부분 대출임을 감안해야 한다), 아직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상가임대 형태로 목회하고 있고, 일부 교회는 담임목회자 가정에서 예배한다.

9) 재정상황



월수입 200만원 이하인 교회가 전체 67%에 이르는데, 500만원 이상 교회를 제외한 교회들의 평균수입을 중위 값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177만원이다. 2022년 12월 기준 이들 교회의 평균 임대료가 대략 1,120,000원 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탈북민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담임목회자 사례



‘사례 없음’이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회 재정에서 담임목회자 사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75%에 달하는 교회가 담임목회자 사례를 100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다만, 책정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는가에 대한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모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자녀들은 방치된다.

11) 주요사역과 목회비전

탈북민교회 사역의 특징은 일반적인 교회사역과 더불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NGO사역, 북한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회 사역, 그룹홈, 대안학교 혹은 방과 후 학교, 북한 내지사역, 구출사역, 해외 양육사역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민교회의 주요 모토 중에 하나는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못자리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북한선교 뿐만 아니라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 그리고 열방선교를 목회비전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북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교회를 세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탈북민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탈북민목회자들이 자비량사역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가는 근거는 이들의 소명에 있다. 탈북민목회자들은 남한 땅에서, 북한사람들과 함께, 남북이 하나 되는 특별한 공동체

를 이룬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 땅에 세워질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다. 탈북민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듯이 통일 그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3. 탈북민교회와 동역하는 몇 가지 제안

북한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선교의 핵심은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수만 명의 북한사람들을 남한 땅에 보내주셨고, 탈북민교회는 이들을 보듬고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임에 틀림없다. 그 중심에 탈북민교회와 탈북민목회자들이 있다.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탈북민교회와 탈북민목회자들을 선교의 범주에서 보자.

지금까지 탈북민교회는 국내 특수목회의 한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교회는 미자립교회로 구분된다. 탈북민교회 사역이 국내 개척교회의 범주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북한선교의 영역까지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선교는 일반적으로 타문화권을 전제로 하는데, 탈북민사역이야 말로 대표적인 타문화권사역이다. 북한과 남한이 같은 언어를 쓰고 일정부분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사상과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 자란 탈북민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같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곳이 탈북민교회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 목회자들은 같은 선교지 주민으로서 국내에 들어온 선교 대상자들을 만나는 선교사들인 것이다. 선교지 주민들이 모여 있는 선교지교회가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이미 몇몇 교단에서는 탈북민사역자들을 교단 선교사로 임명하고 탈북민목회 현장으로 파송하고 있다.

탈북민교회의 존재 의미는 북한에 세워질 교회에 있다.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시적으로 남한 땅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그래서 탈북민교회는 선교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탈북민교회는 북한선교의 현장을 제공하는 곳이다.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북한선교라는 것이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북한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북한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탈북민목회자들’을 ‘남한목회자화’ 하는 것에 힘써왔다. ‘탈북민성도들’을 ‘남한성도화’하는데 열심을 냈다. 거꾸로 해 온 것이다.

북한과 남한은 토양이 전혀 다른 곳이다. 전혀 다른 토양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창조적인 목회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북한사람들의 기질이 이해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북한출신 목회자들의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이런 역동적인 선교훈련의 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흔히 남한교회가 북한출신 사역자들에게 사역현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탈북민교회가 남한출신 사역자들에게 북한선교와 탈북민사역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3) 탈북민목회자 가정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자.

아직까지 탈북민교회는 탈북민성도가 자라서 교회의 형편을 분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담임목회자 가정이 교회운영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탈북민성도가 늘어날수록 재정적자가 커지고 목회자의 헌신이 배가되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가정은 항상 2순위로 밀려난다. 사모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자녀들은 방치된다.

올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250만원이 조금 넘게 책정되었다. 아이 하나

가 있는 한 가정이 한 달을 사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이다. 작년 말 기준, 탈북민교회의 평균 교인 숫자가 36명인데, 한 달 평균 수입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 탈북민목회자는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입으로 평균 36명의 자녀(교인)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담임목회자에 대한 처우는 훨씬 더 심각하다.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담임목회자 사례를 100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고, 이중에 절반은 사례가 전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년 전 부터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탈북민교회 목회자가 일 년 중에 최소 한 달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⁵ 탈북민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일이 북한선교와 통일준비를 위한 선한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4) 탈북민교회 개척운동을 시작하자.

탈북민교회의 모태는 남한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공동체이다. 그 안에서 탈북민 신학생들과 탈북민 성도들이 훈련받고 힘을 얻어 오늘날의 탈북민교회가 시작되었다. 탈북민교회의 주요 결실 중에 하나는 남북한성도들의 건강한 연합이다. 기존 남한교회 안에 탈북민성도가 들어가서 하나 됨을 이루는 것보다(애초에 시작이 다르고 눈높이가 다르다), 탈북민교회 안에 남한성도가 들어와서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탈북민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주인으로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한성도들을 맞이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남한교회(탈북민부서 혹은 탈북민공동체가 있는)는 독립된 탈북민 교회보다는 기존 교회 안에서 탈북민 성도들을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파송을 계획할 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성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본인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수년 내에 분립개척 할 것을 목표로 하고, 탈북민 신학생들을 부교역자로 초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기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5) 2020년부터 불씨선교회(정형신 목사)를 통해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라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탈북민교회 개척운동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다. 가장 먼저, 교회가 생기는 일이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본질에 충실한 운동이다. 둘째, 모든 성도들을 기도와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셋째, 탈북민 성도들이 실질적인 동역자로 세워진다. 실제로 탈북민 교회 안에서 탈북민출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비율은 남한교회 내 탈북민 공동체의 경우보다 높다. 넷째, 남북한성도들의 하나 됨을 이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섯째, 북한선교의 현장이 생기는 일이다.

5) 탈북민교회와 파트너십을 만들라.

교회가 북한선교를 계획했다면 반드시 탈북민교회를 만나야 한다. “우리교회가 북한선교를 한다”가 아니라, “우리교회가 탈북민교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한다”인 것이다.

1단계 :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는 탈북민교회 목회자들을 찾으라. 이들은 대부분 같은 탈북민이거나 탈북민들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전국에는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며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70여개의 탈북민교회가 있다. 목회자의 성향이나 목회철학이 비슷한, 혹은 같은 교단이거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탈북민교회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2단계 : 탈북민교회와 결연을 맺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 단순한 후원교회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탈북민교회는 남한교회에 북한선교의 현장을 제공하고, 남한교회는 탈북민교회의 목회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각기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서로의 리더십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강단교류를 해나간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남한교회와 탈북민교회가 통일준비의 파트너가 되어 아름다운 동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3단계 : 열매를 기대하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심는 북한선교의 씨앗이 아름다운 통일의 열매로 결실할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라.

6) 북한선교의 획기적인 환경을 조성하라.

한국교회는 탈북민교회와 탈북민목회자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사역은 교단차원의 결의와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7만 교회가 70개 탈북민교회와 1:1로 연결된다면 1000개 교회가 1개 교회를 품는 것이다. 북한교회에 복음의 빛을 한국교회가 짊어지는 너무나 가벼운 짐이면서 동시에 한국교회를 통일준비사역으로 이끌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탈북민교회 운영비가 아니라 사역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사역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000개 교회가 각각 한 달에 5만원, 1년에 50만원씩 북한선교 사역비를 책정하면, 탈북민교회 한 개당 매년 5억이 모아진다.

탈북민교회가 이 사역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북한 내부에 생활비와 복음을 들여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들을 섬길 수 있다. 국내 정착한 탈북민 이웃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실제로 섬길 수 있는 부교역자를 청빙하고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국내 탈북민 전도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역량 있는 사역자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통일준비사역은 가치와 명분은 충분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처우가 사명자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사역에 맞는 합당한 대우는 실력 있는 사역자들을 모으는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북한선교사역에 동참하고자 밀려드는 사역자들을 선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 사역은 그만한 가치와 명분이 있다.

남한목회자들로 하여금, 탈북민교회 안에서 북한사람들의 기질이 이해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북한출신 목회자들의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이런 역동적인 선교훈련의 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7) 탈북민교회는 한국교회와 동역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탈북민교회는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분명한 열매이다. 그리고 북한선교의

●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2023년 7월)



II

감리회 탈북민교회

1. 새터교회
2. 향연교회
3. 예수새민교회
4. 여명교회
5. 실만한물가교회
6. 예수마음교회
7. 회령교회

1

서울남연회 양천지방회 새터교회

(담임 최 정 순 전도사 / 선교 강 철 호 목사)

- 창립일 : 2004. 12. 27.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B동 4층(신정동, 우성B상가)
- 전화/이메일 : 새터교회 02-2067-8242 / kangch214@hanmail.net
최정순 전도사 010-3762-0221, 강철호 목사 010-7202-8243

1) 주요 연혁

2004. 12. 27. 평화통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양천지방에 개척설립
2005. 3. 자활공동체 백두식품 개업(경기 김포시 통진읍)
2006. 5. 지역 노인 100명 초청 관문점 방문, 분단의 아픔 행사 진행
2006. 8. 탈북민 청소년 한국사회 문화체험행사 주관
2007. 4. 지역 무의탁 노인 100명 초청 급식(백두식품 느릅냉면 접대)
2007. 양천구 새터민 한마음 대축제 주관
2008. 6. 새 성전 이전(보증금 1억 3,500만원+월세 130만원, 관리비 50만원) 신월동에서 신정동으로 이전 및 새터교회로 교회명칭 변경
2008. 7. 새터민자립지원센터(사설) 개소

2) 사역자 소개 - 최정순 전도사

저는 1996년 6월에 탈북하여 중국에 얼마 있지 못하고 북한으로 북송되었고, 1997년에 중국에 재탈북하여 5년 체류 후 200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2018년에 담임목사님이신 강철호목사님께서 사단법인 그날까지 선교연합에서(손인식 목사)진행하는 힐링킹덤으로 안내해 주셔서 2박 3일의 기간 동안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감리교신학교에 가

게 된 것은 강철호목사님께서 적극 추천해주시고 담임목사님도 가면 더 배울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신대에서 더 많은 것에 감동을 받아서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안고 지금은 북한으로 갈 수 없지만 3국에서 고생하는 탈북민 형제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 서울남연회 영등포지방회 향연교회

(담임 서경화 목사)

- 창립일 : 2018. 4. 8.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37, 2층
- 전화/이메일 : 서경화 목사 010-5630-9077 / skh7375@naver.com

1) 주요 연혁

2018. 1. 7. 예배 시작

2018. 4. 8. 서울남연회 영등포지방 편입

2021. 11. 27. 영등포 선유로에서 도신로로 이전 예배

2023. 11. 16. 영등포 도신로 노인 잔치

2) 사역자 소개

2001. 4. 대한민국 입국

2004. 평화통일교회 심방전도사

2007. 하나감리교회 심방전도사

2007.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협의회 상담사,

2011-2013. 천사요양보호사 교육부장 담당,

2014-2016. 굿월스토어 장애인&매장담당 ‘사회복지사’

2012-2015. 국제 사이버대학 졸업

2021. 4. 9. 목사 안수 받음

2017~현재 “북한기독교총연합회”부회장

2018~현재 향연교회 담임

3) 교회 사역

감리교목회신학대학원에 2015년 입학하여 2018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 회개하고 2018년 1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등포 지방회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향연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다

른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되어 향연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교회는 2018년 4월 8일에 영등포 지방에 편입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 손준호장로님, 이성민교수님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고, 현재 교인은 탈북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예배는 탈북민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중국의 10대 청소년 5-6명과 함께 청소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4) 목회 비전

향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준비 되어 성도들 각자가 자기가 온 고향에 가서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 준비 되어, 각자의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5) 사역 목표

- ① 2024년 향연교회 주변 모든 분들을 1인 2명씩 전도하는 것
- ② 북한 땅, 중국 땅에 원치 않게 팔려 간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
- ③ 두고 온 고향에 부모형제들을 찾아 복음 전하며 재정을 보내는 것

6) 기도제목

- ① 향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게 하소서.
- ②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를 허락 하소서.
- ③ 향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서울연회 노원지방회 예수새민교회

(담임 안란희 목사)

- 창립일 : 2018. 4. 22.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164 2층
- 전화/이메일 : 안란희 목사 010-6308-7705 / alh35@naver.com

1) 주요 연혁

2018. 4. 22. 예수새민교회 설립
 2018. 9. 예수새민 추석감사예배 (서울지역 70명)
 2019. 4. 예수새민 설립 1주기 감사 예배 (서울지역 50명)
 2019. 9. 예수새민 추석 감사 예배 (노원지역 40명)
 2020. 4. 예수새민 설립 2주기 감사 예배 (서울지역 50명)
 2020. 9. 예수새민 추석 감사 예배 (서울지역 40명)
 2021. 4. 예수새민 설립 3주기 감사 예배 (서울지역 50명)
 2021. 9. 예수새민 추석 감사 예배 (서울지역 50명)
 2022. 4. 예수새민 창립 4주 감사 예배 (서울지역 20명)
 2022. 9. 예수새민 추석 감사 예배 (서울지역 20명)
 2023. 4. 예수새민 설립 5주 감사 예배 (서울지역 50명)
 2023. 9. 예수 새민 추석 감사 예배 (서울지역 30명)
 2023. 12. 예수 새민 & 코람데오 성탄 감사 예배 (서울지역 50명)
 2024. 4. 부활절 감사 예배 (서울지역 50명) 계획 준비 중
 매년 4회 1박 2일 수련회 및 엠티 활동

2) 사역자 소개

2005. 3. 대한민국 입국
 2009. 3. 감리교신학대학 입학(신학전공)
 2013. 3. 감리교 신학대학원(교회사 전공)
 2013. 3. ~ 2018. 3. 서울남연회 강남성은교회 청년부 전도사
 2018. 4. 22. 예수새민교회 설립
 2024. ~ 현재 예수새민교회 담임목사

3) 교회 사역

2018년 4월 22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예수새민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초교파적으로 개척한 탈북민교회 중 52호 교회입니다. 예수새민교회는 받은바 소명에 따라 노원지역에 살고있는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새민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멀게는 수락산까지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50명이 등록하고 현재 15가족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민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기도의 중심에 세워지고 있으며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소그룹 성경공부와 말씀, 기도 중심의 사역을 진행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새민교회는 탈북민들의 상처와 아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 가는 교회라는 인식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새민교회가 뿌리를 잘 내려 많은 상처로 신음하는 탈북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을 수 있는 교회로, 장차 복음통일 주역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탈북민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인도함으로써 복음의 공동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매월 교회 임대료를 내야 하는 부담감입니다. 밀린 월세와 감당해야 할 전기세, 관리비, 공과금에 대한 압박감으로 목회 사역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탈북 성도들을 위한 목회를 맡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토대는 장차 복음통일 이후 북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모델이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새민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문화에 오랫동안 답습되어 살아왔기에 교회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저들에게 믿음 생활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귀히 여기셨듯이 탈북 성도들이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예수새민교회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성실한 목회, 하나님 나라와 북한구원을 위해 어렵고 힘든 탈북 목

회이지만 더욱 힘써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4) 목회 비전

예수새민교회는 ‘복음 통일을 갈망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과 미래 목회 비전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새민교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뤄주실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둘째, 교회는 미래 북한 복음화를 위해 복음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북한 복음화를 위한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

셋째, 북한의 무너진 3천 개 교회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것

넷째, 하나님이 보내주신 탈북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것

5) 기도 제목

- ① 예수새민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② 노원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생활에 충실하여 특별히 몸된 교회와 공동체의 생명을 나누는 일원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 ③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예배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경기연회 화성동지방회 여명교회

(담임 김송희 전도사)

- 창립일 : 2021. 5. 15.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8, 3층 1호(동화리)
- 전화/이메일 : 김송희 전도사 010-4005-1350 / kim64891964@gmail.com

1) 사역자 소개

1998. 10. 탈북

2007. 8. 대한민국 입국

(북한대학 졸업, 사회복지사2급, 영양보호사, 한식 조리사, 한복)

2021. 8. 감리교신학대학원 졸업

여명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코로나가 한창인 때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개척하게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였고,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아들과 함께하던 사업도 망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교회자리와 리모델링과 교회 안의 모든 비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2년후에는 재계약이 안되었지만 더 좋고 아름답다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2) 교회 사역

- ① 성경쓰기 및 성경암송
- ② 매주 수요일 봉어빵을 만들어 전도사역
- ③ 중국내 13명의 탈북민 제자양육과 생활비 후원

- ④ 20명의 자녀들을 통일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 우리말 배우기와 성경말씀 암송

3) 기도 제목

- ① 여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
- ② 여명교회 성도들이 복음통일의 마중물의 역할과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 ③ 고향 땅에 세우고 기도하는 20개의 여명교회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 ④ 한국 성도들, 특히 중국내 우리 에스더 여명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중국 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 ⑤ 중국의 자녀들이 한국에 초청되어 여름 방학동안 나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재정과 장소를 위한 기도
- ⑥ 중국에 보내지는 선교 현금이 한 가정당 20만 원씩 매달 채워지기를 위하여



5 경기연회 새광명지방회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정원 전도사)

- 창립일 : 2021. 12.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92, 리더스빌딩 307호(광명동)
- 전화/이메일 : 김정원 전도사 010-8478-9115 / kcok6911@naver.com

1) 주요 연혁

2021. 12. 하나이음교회 개척설립 예배

2022. 6. 25. 경기연회 새광명지방회 등록 및 이전 감사예배

2) 사역자 소개

1997. 8. 탈북(고향 함흥)

2003. 12. 대한민국 입국

2020. 8.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졸업

저는 북한의 함흥시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범학생으로 리더십도 있었고, ‘꼬마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딸과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안고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더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어 많은 사연 끝에 중국에 오게 되었고, 중국에서 하얀 입쌀밥과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북한에서는 그 작은 배도 채워주지 못해 산과 들의 풀을 주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실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조선이라는 곳이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경제가 세계 10권에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색출하여 잡아가는 공안을 피해 생명의 안전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북경으로 향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경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은 저의 앞길을 이미 마련하셨고, 마음껏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저를 붙들어주셨고, 만져주셨으며, 설만한물가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 북한선교홍보(2024년 4월 29일)



▲ 교회수련회(2024년 4월 14일)



▲ DMG미드바르교회 연합예배
(2024년 4월 14일)



▲ 북한선교실천기도모임(2024년 3월 27일)

- 창립일 : 2022. 1. 9.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106, 지층
- 전화/이메일 : 조연조 전도사 010-3957-3038 / jjy51433@naver.com

1) 사역자 소개

2011년에 탈북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중앙교회에서 2015년 11월 세례를 받고 2016년 제자훈련, 2017년 SMCT선교훈련과 2018년 제자사역자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7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단기선교기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저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2019년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고 2022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2022년 1월 9일 중부연회 고양지방회 예수마음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습니다.

2) 목회 비전

예수마음교회는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비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만민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아름다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남한의 그리스도인들과 서로의 다름을 경험하며 이해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를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주요 사역

이 땅에 부름 받고 온 탈북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장하여 디아스포라로 세우는 제자양육이 교회사역의 핵심입니다.

- ① 2024년 교회표어 “예배하는 자”(요 4:24)
- ②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린아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
- ③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질 제자훈련을 위한 새신자 훈련, 성장반 훈련, 성경 공부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
- ④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한 책의 사람으로 거듭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보냄 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양육하는 것

4) 기도 제목

- ① 예수마음교회가 고양지방에 있는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
- ② 예수마음교회 성도들이 어둠의 터널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인 부모, 형제, 자매에게 생명의 빛이신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는 것
- ③ 예수마음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 ④ 교통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한 교회 승합차가 마련되는 것
- ⑤ 예수마음교회가 자립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



- 창립일 : 2022. 12. 3.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68, 2층(세류동)
- 전화/이메일 : 신연희 전도사 010-3927-1638 / sinjhee443@gmail.com

1) 사역자 소개

저는 1998년 3월에 중국으로 탈북하여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고 살다가 2004년도에 중국공안국에 의해 북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세울 계획으로 기도하던 중 다시 중국으로 부르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2004년 12월 재탈북했습니다. 중국공안당국의 엄격한 통제, 갑작스러운 집수색에 불안하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므로 대한민국으로 2005년 9월에 입국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2006년 1월 하나원을 퇴소한 후 인천에 집을 받았습니다. 적십자도우미의 도움으로 간병인을 처음 시작하였고, 그 후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와서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일하던 중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2015년 광나루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서기로 섬기던 중 회장 강철호목사님과 부회장 서경화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두분의 신앙과 믿음에 감동받아 감리교신학대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 1학년 1학기 휴학중이던 저는 자퇴를 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2023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600~700명 넘는 탈북민들이 있는 수원 땅에 탈북민교회가 없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 현재 세류동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선교사 훈련을 남편과 함께 2022년 수료

하면서 언제든지 부르시는 그곳에 갈 것을 서원하였고,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목회 비전

제가 갈수는 없지만, 미디어를 이용한 줌과 채팅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다가오는 3월 23일 “새생명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다시 돌아갈 고향땅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III

감리회 탈북민 선교 교회 / 기관

1. 안성제일교회
2. 인천평화교회
3. 은암선교교회
4. 진천교회 디딤돌 봉사회
5.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6.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7. 하늘꿈학교/사단법인 좋은씨앗
8. 사단법인 하늘우산
9.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감리교신학대학교 부설연구소)
10. 사단법인 탈북민 자립지원센터

경기연회 안성지방회 안성제일교회

(담임 이선진 목사)

- 창립일 : 1950. 9. 20.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중앙 2길 43
- 전화/FAX : 031-673-3600 / 031-673-3601

1) 안성제일교회 복음평화통일 선교사역의 시작

안성제일교회는 1950년 9월 창립되었습니다. 6.25전쟁 발발 3개월이 지난 때에, 피난으로 내려왔던 한 가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의미 있음을 깨닫고 70주년(2020년)을 맞이하며 교회 비전 중, 복음평화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자 복음평화통일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2) 평화통일학교

2021년에 시작한 평화통일학교는 매년 6월 주일오후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2024년 제4회 진행 예정). 이는 4-5주의 특강을 통해, 복음 안에서 평화통일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매년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문 강사를 통해 지금까지 막연한 평화통일을 깨닫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평화통일로 세워가기 위해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화 : 이것은 주님이 이루실 평화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비폭력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이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선적 가치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 :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준비하고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 방향입니다. 또한 성경적 통일관을 가지고자 합니다.

학교 : 이를 위해 배우고 행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회 각자의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적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성제일교회 평화통일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사도로 부름 받아, 분단을 향해 복음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행하는 일꾼을 세워가는 배움의 터전입니다.

〈평화통일학교 커리큘럼〉

주차	제1회(2021년)	제2회(2022년)	제3회(2023년)	제4회(2024년)
1주	통일선교의 비전	북한이탈주민 이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성찬예배	이념을 넘는 복음 통일
2주	남북 화해와 평화	인도적 대북협력의 성과와 과제	북한선교의 네 가지 관점	남한 교회를 넘어 북한교회 준비
3주	북한사회와 주체사상 이해	북한 이해	탈북찬양간증	탈북청년에게 배우는 평화통일
4주	금요기도회 특강 : 섬김의 신앙과 평화통일선교	금요기도회 특강 :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금요기도회 특강 : 기독교와 주체사상	금요기도회 특강 : 구국기도의 사명
5주	통일선교의 사명	탈북간증 :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사람의 통일	





3) 북한이탈주민 상담2급 자격과정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 그들의 삶에 직접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평신도 전문사역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총 24-27주의 과정으로, 약 6개월 동안 10명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교육하고, 자격증을 발급받고 이 사역을 위해 양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23년도에 1기생을 배출했고, 24년 4월부터 2기생 교육이 시작됩니다.



4)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

매달 넷째주 금요기도회는 복음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송실대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와 평통연대, 주빌리 구국기도회, 에스더기도운동 등에서 나오는 기도제목들을 수합하여 집중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5) 복음평화통일 도시포럼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와 협력하여, 안성시의 도시교회들이 함께 복음평화통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초청하여 관련 사역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 기타 사역

① 중국접경지역 및 국내 탈북민교회 성경책 보내기 운동

중국에 탈북하여 있는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도, 한글로 된 성경책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성경말씀을 써서 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탈북민교회도 대부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비싼 성경책을 구입하여, 교회에 비치용 성경을 두는 것도 부담되고, 새가족이 와도 선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안성제일교회는 매년 100일 성경통독을 끝내는 시점에 1독을 한 개인들이 1권의 성경책을 구입해서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50여권, 약 1,200만원을 후원했고, 매년 성경을, 탈북민들에게 보급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② 국내 탈북민교회와 함께 하는 남북연합기도회

1년에 한 번, 인접한 탈북민교회를 성도님들과 방문하여, 그 교회에서 연합기도회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평택, 인천 등, 남북교회가 기도로 연합하고, 드러진 헌금은 탈북민 가정에 찹쌀을 보급하는데 사용됩니다.

③ 복음평화통일 특별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아닌, 3일간 이어가는 특별 세미나입니다. 금요기도회, 토요일 오전, 오후 강의, 주일 말씀으로 이어지는 배움을 통해, 전교인에게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꿈꾸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④ 청년리더 세우기

태백에는 「네 번째 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외국인들이지만, 소명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통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와 청년 리더들이 태백에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통해, 복음통일에 대해 나누고, 공유하며, 생각을 확장하고, 실천하는 리더로 세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8월 초에 태백에서 진행을 준비)

기독교 통일세미나

일시 2023년 10월 28일(토), 오전 10:30

장소 안성제일교회 교육관 2층예배실

강사 윤상혁 박사(송신대 기독교통일지도자 학과, 평양제철의학과)

#주제1: 상처받은 자유자로 한반도에서 살아가기

#주제2: 복讎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사랑의 직분



2 중부연회 남동서지방회 인천평화교회 / 평화의동지 사회복지센터 (담임 김신숙 목사)

- 창립일 : 2006. 9. 23.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고개로 938, 501호(논현1동 금아프라자)
- 전화/FAX : 032-438-1191 / 032-438-1192(FAX 겸용)

1) 주요 연혁

1999. 중부연회 부천서지방 꿈마을엘림교회(김영대 목사)에서 새터민 교회 개척을 위한 ‘달란트 체험실천 운동’ 시작
2006. 9. 23. 부천평화교회를 개척설립
2009. 4. 19. 탈북민 밀집지역인 논현지역으로 이전 및 입당 감사예배, 지역 이름을 따서 인천평화교회로 개명

2) 설립 취지

이 땅에 희망을 품고 찾아온 새터민들이 3만 3천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잘 정착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꿈마을엘림교회는 부천평화교회를 2006년 9월 23일에 개척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은 1999년부터 ‘북한선교’를 위한 비전으로 새터민 교회 개척을 위한 ‘달란트 체험실천 운동’에 전교인들이 동참한 결실입니다.

2009년 4월 19일에는 보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하여 새터민 밀집지역인 논현지역으로 이전하여 인천평화교회로 새롭게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정착한 곳이기도 하여 이분들을 위한 문화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목회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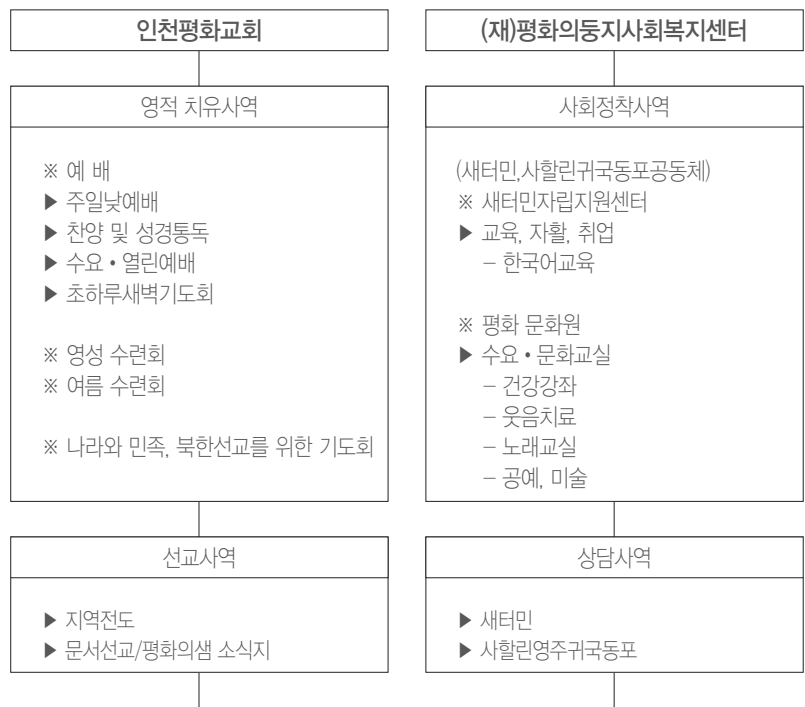
인천평화교회는 새터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일과 교육, 자활, 취업, 인권, 복지 향상을 통해 남한 사회에 잘 정착

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훗날 통일시대에 북한선교를 위한 복음의 씨앗이 될 사명자를 양육하여 세우는 교회입니다.

4) 기도 제목

- ① 나라와 민족 • 평화통일 • 북한선교 • 제3국의 탈북자들을 위하여
- ② 인천평화교회 • 평화의등지 정착과 부흥과 사명을 위하여
 - 훈련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형성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 통일 후 복음의 씨앗이 될 신실한 사명자를 위하여
- ③ 후원교회(후원자)와 기관,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소서

5) 중점 사역



후원교회와 연합사역

- ▶ 부활절 예배
- ▶ 추수감사절 예배
- ▶ 성탄절 예배

지역기관 네트워크

- ▶ 한가위 한마당 큰잔치
- ▶ 지역기관과 협력
- ▶ 장학사업



▲ 부활절 예배 후



▲ 문화원 나들이



▲ 담임목사 이취임예배

서울남연회 송파지방회 은암선교교회

(담임 길도원 목사)

- 창립일 : 1988. 5. 20.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200 지하1층
- 전화/FAX : 010-2403-5252

1) 주요 연혁

1988. 5. 20. 은암 이경재 감독 기념교회로 창립
2003.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 개교와 더불어 교무처장인 송경곤 목사가 7대 담임목사로 부임
2004. 송파구, 광진구 등에 거주하는 하늘꿈학교의 학생과 북한선교에 관심있는 교직원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전환, '하늘꿈젊은이교회'라고도 불림
2011. 5. 길도원 담임전도사 취임
2014. 4. 길도원 담임목사 취임
2015. 2. 현재 장소로 교회 이전
2024. 현재까지 길도원 목사 담임자로 사역

2) 사역자 소개

2003년 이후 하늘꿈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8년 정도 봉사하였습니다. 2008년 감신대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2010년 10월에 담임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여 2011년 5월 담임전도사로 취임, 2014년 목사안수 후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20여명 있고 하늘꿈학교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 전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청년들이었지만 지금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들이 5가정이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지만 특별한 날에는 많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니다. 성도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3) 목회 비전

- ① 탈북민 젊은이를 대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
- ②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
- ③ 탈북민들이 한국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이들을 차세대 통일 지도자로 양육



4 충북연회 진천지방회 진천교회 디딤돌 봉사회 (대표 김학성 장로)

1) 주요 연혁

디딤돌 봉사회는 2003년 시작된 진천 기독교실업인회가 전신으로 2020년 뜻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중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업을 하다가, 2021년 중국의 교회 탄압으로 중단하고 탈북민들 봉사를 위한 단체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 사역 소개

한 민족이며 동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탈북민들의 정착과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22명의 회원과(진천 탈북민 단체 회장, 임원 2명 포함) 4~50여 탈북민이 함께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진천에 160명의 탈북민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농사도 짓고 명절에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고, 김장 담그기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감자, 고구마, 배추를 심어 나누어 먹고, 독거노인 경로당, 미자립교회에 조금이나마 나누며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봉사회는 북한 실정과 탈북 과정의 질문,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등을 일체 배제한 순수한 교제를 했는데, 2024년 3월에 두 가정이 진천감리교회에 등록했습니다. 5년 전 탈북민 선교를 위한 세미나에서 탈북민 연광규 전 도사님(장신대, 지금은 김장환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미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

해 공부 중)이 무조건 3년을 섬기면 어느 날 탈북민이 교회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첫 감사의 주일이었습니다. 작년 부터는 일 년에 한번 씩 순회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재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던 온성도 목사님을 모시고, 진천감리교회에서 20여 탈북민이 함께 예배를(담임 이찬우 목사) 드렸습니다.

올해는 신년 기도회에서 지역에 있는 덕산제일감리교회 김만오 목사님을 모시고 들었던 강도 '만난자의 이웃'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터교회 탈북민 강철호 목사님을 모시고 진천제일감리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 탈북민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 통일을 위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디딤돌 봉사회는 탈북민들이 인격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 교육의 상담, 질병, 취업이나 사업 등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진천 디딤돌선교회 순회 예배 〉

- 일 시 : 2024. 03. 10. (일) 14 : 00
- 장 소 : 진천제일교회
- 인 도 : 이은순 사무국장(진천중앙교회)

순서	담 당	소속교회
1. 찬 양	오후예배 찬양팀	진천제일교회
2. 신앙고백(사도신경)	다같이	
3. 기 도	이영주 장로	금천침례교회
4. 성경봉독 (창세기 45:1~8)	전용기 장로	진천제일교회
5. 시온찬양대	제일교회 장로	진천제일교회
6. 특 송	“부흥”	진천디딤돌봉사회 회원
7. 진천 디딤돌봉사회 및 강사 목사 소개	김학성 회장	진천감리교회
8. 말씀 (“용서와 화해”)	강철호 목사	새터교회(탈북민교회) 담임
9. 찬송가 620장	다같이	
10. 교회 광고	진천제일교회	
11. 축 도	강철호 목사	새터교회(탈북민교회) 담임

- 창립일 : 2010. 6. 15.
- 주 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9-1 안성빌딩 A동 227호
- 전화/FAX/홈페이지 : 02-2671-8532 / 02-2671-8533 / www.북사협.com

1) 설립 목적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는 사람의 통일과 북한 교회 재건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기관입니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람의 통일입니다. 서독인들의 우월감과 동독인들의 열등감은 갈등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참된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 탈북민들의 정착 과정을 볼 때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는 사람의 통일을 만들어가고 통일 후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탈북민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사역 내용

첫째,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이라 판단하고 약 50명의 탈북민들을 모아 기독교적 품성 교육과 신앙 훈련을 매월 2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교육생(탈북민)들이 기형적 체제와 목숨 건 탈북 과정에서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치유하고 있으며 본회 이사목회자들이 신앙 및 생활 정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와 정서적 차이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에게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직장을 발굴 알선하고 있습니다.

넷째, 탈북민들은 혼자 탈북한 경우가 많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보니 무분별한 이성 교제나 사기 결혼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 있는 결혼 정보 업체와 협약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섯째, 탈북민 영성 및 안보 수양회, 내적치유, 농촌문화체험, 역사지 탐방, 성경통독반 운영, 연약계층 김장봉사 및 현충원 헌화 봉사 등을 통해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남한의 계층과 사회, 문화와 역사 이해를 도와 탈북민들의 건강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사역 결과

사역 결과 그들의 획일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와 품성이 기독교적 품성으로 치유 변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 후 고향에 돌아가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까지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치유와 변화는 그들이 남한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데 큰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통일 후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일조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사역이 사람의 통일과 복음 통일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 통일안보 수양회(철원DMZ)



▲ Again1907 평양대부흥회



▲ 탈북민 평신도선교사 교육



▲ 감리교북한회복운동 기도회 특별찬양



▲ 탈북민영성수련회(오산리기도원)



▲ 정기총회



▲ 호국의 달 현충원 헌화봉사



▲ 농촌문화 체험



▲ 탈북민 성경 통독반

6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대표의장 박동찬 목사)

1)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조직(2024년)

고 문 : 김영현 감독, 김철한 감독, 박상철 목사, 장학일 목사,
최상용 목사

지 도 위 원 : 송기성 목사, 조경열 목사, 최이우 목사, 현인호 목사,
이원재 목사 김동현 목사

자 문 위 원 : 위원장 - 유관지 목사

위 원 - 임향자 목사, 홍바울 목사, 강철호 목사

감 사 : 임일우 목사, 황건원 목사

대 표 의 장 : 박동찬 목사

공 동 의 장 : 황건원 목사, 최범선 목사, 강효성 목사, 최재선 목사,
천영태 목사, 장석주 목사, 권병훈 목사, 전창희 목사

사 무 총 장 : 정요섭 목사

2) 주요 연혁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은 2012년 12월 20일, 탈북주민들의 북송 반대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감리교회가 함께 모여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자고 결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품고,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을 위해 매월 둘째 주가 지난 목요일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창립된 이래로 2024년 오늘까지 기도회를 꾸준히 진행하여, 2024년 2월, 현재 120회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사역 소개

기도함으로 시작된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은, 20여 회원교회의 매월 후원금으로 해외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북송될 위기에 처한 탈북주민들을 긴급 탈

출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일과 탈북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하늘꿈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내 탈북목회자들이 세운 7교회/새터교회(최정순 전도사), 예수새민교회(안란희 목사), 향연교회(서정화 목사), 여명교회(김송희 전도사), 실만한물가교회(김정원 전도사), 예수마음교회(조연조 전도사), 회령교회(신연희 전도사)를 매월 후원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홍바울 목사)를 지속 지원하고, 탈북신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법인 탈북민 자립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통일선교학당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 통일정책, 각 교단의 통일을 위한 준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배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7

하늘꿈학교

(교장 임향자 목사)/(사단법인) 좋은씨앗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 (복정동)
- 전화/FAX : 031-758-2071~3, 031-758-2076 / 031-758-2079
- 홈페이지 : <https://www.hdschool.org>



사단법인 좋은씨앗

하늘꿈학교

HEAVENLY DREAM SCHOOL



1) 하늘꿈학교 주요 연혁

일 시	내 용
2002.11.1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추진 협의회 설립
2003.03.10.	하늘꿈학교 개교식
2003.08.01.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좋은씨앗 설립허가
2012.05.08.	서울시 교육청 탈북청소년을 위한 예비학교 지정 (2년간 운영)
2012.06.22.	하늘꿈 직업훈련센터 개소식
2013.02.22.	서울시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약정 (2년간 운영)
2014.02.28.	서울시 교육청 탈북,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
2015.11.13.	하늘꿈학교 경기도 교육청 인가(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2016.08.01.	교육부 주관 통일준비(시범)학교 선정
2017.01.17.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통일부(통일교육원) 주관 연구학교 선정 (2년간 운영)
2018.12.26.	경기도교육청 연구학교 우수 평가 및 교육감 표창
2020.03.01.	하늘꿈학교 교명 변경 '하늘꿈중고등학교'
2020.10.27.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사)아시아교육협회와 AI 맞춤형 교육 업무협약 체결
2021.12.20.	송경곤 교감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2021.12.30.	강윤희 연구부장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2022.09.05.	강윤희 연구부장 아시아교육협회 High Touch High Tech 챔피언 연구자 선정
2022.12.26.	임항자 교장 대통령 표창 수상
2023.12.01.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단체부문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 수상
2023.12.27.	정웅섭 행정실장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2) 하늘꿈학교 교육 목표



하늘꿈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을 자유민주통일과 북한 회복을 이루는 일꾼으로 양성한다.

<하늘꿈학교 사명 선언문>
Heavenly Dream School Mission Statement

① 북한이탈청소년의 건강한 한국 사회 정착

- 민주시민으로 성장
- 자립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

② 통일 시대의 리더십 양성

- 지성, 인성, 신앙을 갖춘 인재로 양성
- 북한 재건에 필요한 전문 기술 습득
-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함양



3) 하늘꿈학교 교육 내용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교육
-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가정형 기숙사 운영
- 신앙교육 - 성경수업, 일대일 양육, 신앙캠프
- 남북통합 교육 - 남북청소년교류, 영어통일캠프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 - 지역사회 연계 활동
- 영어 특성화 교육 - 수준별 영어 수업, 원어민 홈스테이
- 북한이탈청소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전문 교육 모델 연구
- 북한이탈청소년 공동체 -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하는 홈커밍데이

4) 하늘꿈학교 현황 (2024년 2월말 기준)

■ 학생 현황 (단위: 명)

■ 졸업생 대학 진학 현황 (단위: 명)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인원	6	6	13	10	9	14	8	16	20	18	15
년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인원	11	9	10	11	21	17	18	18	11		261

* 졸업생의 약 90%이상 대학 진학 (재입학 포함)

8

사단법인 하늘우산

(대표 손준호 선교사)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20 C빌딩202호 (사)하늘우산
- 전화 : 02-2679-6901
- 홈페이지/이메일 : <http://www.huo.or.kr> / ngohuo@huo.or.kr

사단법인 하늘우산은 통일선교를 위해 20년 이상 중국 변경에서 사역하던 감리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감리교회에서 통일선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한 사역자들이 2014년 설립한 통일부 소속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1) 주요 연혁

1994.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주관 통일기도회를 통한 통일희년운동 시작
 1997-2010. 중국 압록강 변경에 의덕기금회를 설립하고 북한에 의약품과 식량지원 서간도와 북간도지역에 탈북민을 위한 복음자리 운영(7개처)

2009-현재. 하늘까마귀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변경을 통한 동절기 생필품 지원

2014. 3. 14. 하늘우산 창립총회

2015. 1. 14. 통일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사)하늘우산

2015-2016. 탈북민 직업학교 한교원 운영 및 지원

2015. 12. 탈북민돌봄을 위한 시설 하늘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선정됨

탈북민과 함께하는 민통선순례 시작(계속사업)

탈북민과 함께하는 간도순례 시작(계속사업)

2016. 2. 하늘쉼터 개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과 통일선교지도자교육 진행(계속사업)

2017. 1. 하늘쉼터 통일부장관 방문

기획재정부 기부금지정단체 승인

탈북청소년 지원을 위한 작은 음악회(매년사업)

- 2018. 한민족공동체 사랑의 집 존애원 개원
탈북민과 함께하는 연해주순례(매년사업)
- 2019. 7. 탈북민 하늘우산 합창단 창립
9. 7. 연해주 한민족문화센터 결립을 위한 아리 아리랑 대합창제(KBS
홀)
- 2020. 코로나팬데믹 이후 탈북민가정 생필품 지원
탈북민 51가정 추석선물(매년사업)
- 2021. 탈북민 100가정 설 떡국떡 보내기(매년사업)
탈북민 100가정 김장김치 보내기(매년사업)
- 2022. 러시아 감옥에 있는 북한노동자 지원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 지원
하늘쉼터 통일부장관 표창
- 2023. 9. 하늘쉼터 국제북한인권청년들(6개국)과 함께하는 추석행사

2) 설립 목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과, 탈북민 및 대한민국 청소년, 장년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통일 한반도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합니다. 나아가 고려인, 조선족 등 동포들을 섬김으로 한민족공동체를 회복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탈북민 지원사업, 통일시대 준비사업, 한민족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3) 사역 소개

① 탈북민지원사업

▶ 상담센터 운영

- 사업의 목적 :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교육상담, 법률상담, 생활상담 등의 상담을 시행하여 탈북민들의 건전한 정착을 지원
- 사업내용 : 법률상담, 건강상담, 내적치유, 생활상담

▶ 하늘쉘터 운영

－ 사업의 목적 :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탈북민 주택상실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운영의 목적은 첫째, 하늘쉘터를 통하여 탈북민들의 상태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돕고 지원함으로써 한국에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수용자들이 고향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으로 돌봄으로 신뢰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셋째, 정직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지원하는 재단과 보호받는 수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쉘터의 모델을 만드는 것임

－ 사업의 내용

- 수요자조모임 : 퇴소생들과 생활인들이 함께 매주 수요일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개인의 고민과 갈등을 서로 이야기하며 정보를 시간을 갖고 있음
- 봉사활동 : 매월 실시함. 성산지역아동센터, 빵만사 봉사, 도시락 나눔, 지역 독거노인
- 범죄예방교육 : 서부경찰서에서 쉘터에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함
- 문화체험 : 영화감상, 음악회와 각종 공연 관람, 고궁견학, 시내 체험

▶ 하늘까마귀 프로젝트

- － 사업의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 3국 탈북민과 중국접경지역 동포들에게 식량, 의복, 의약품,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나누는 사업
- － 사업내용 : 중국체류 탈북민 지원 및 북한가정 생필품 지원

② 통일시대 준비사업

▶ 민통선, 간도 백두산, 연해주 순례

- － 사업의 목적 : 우리민족 역사의 현장인 간도와 연해주지역(중국동

북삼성)과 백두산 그리 민통선순례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조명해 봄으로 우리의 역사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분단의 현장인 민통선과 중국과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연해주순례를 통하여 북한 땅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공동체 회복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시대 준비사업

－ 사업내용 : 민통선 순례, 간도 백두산순례, 연해주 순례

▶ 하늘우산 통일음악회/ 작은음악회

－ 사업의 목적 : 탈북민과 해외동포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악을 통해 사랑을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시대 준비사업

－ 사업내용 : 통일음악회는 연해주 고려인문화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행사이며, 작은음악회는 탈북민청소년 장학금지원을 위한 음악회

▶ 하늘우산 통일이카데미

－ 사업의 목적 : 통일시대 아카데미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나눔으로써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진정한 통일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

③ 한민족공동체지원 사업

▶ 한민족공동체 사랑의 집 존애원

－ 사업의 목적 : 존애원 사업은 민족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으로 2018년부터 탈북민, 조선족,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교육과 직업에 관한 상담, 복지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하늘우산 열방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

－ 사업내용 : 한국에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주식을 제공하고 신앙으로 돌보고 섬기는 존애원의 주요프로그램은

신앙상담, 봉사활동을 통한 상호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 연해주 한민족문화센터

- 사업의 목적 : 감리교 연해주사역자들의 영적쉼터 역할과 감리교연해주선교 100주년 역사자료관 등을 만들어 연해주 지역 감리교 사역자들의 문화사역의 중심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과 연

해주지역 고려인들과 협력하여 북한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면서 통일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가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탈북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제5회 하늘우산 SKY BLUE UMBRELLA

* 작은 음악회

2023. 12. 2(토) 오후 3시
꽃재교회 사론홀

사회 : 기쁨의교회 김다솜 장년

합시바 합창단
크로세
자학경(S), 분재영(T), 이흥원(G)
합파스 앙상블
김도영(DP), 조아연(PF), 박희영(CJ)
전은주

그 외 출연진 탈북민 이은철(클래식기타연주), 탈북민 김에스터(아코디언연주)

주최 : (사) 하늘우산
후원 : 합시바합창단, 감리교실업인선교회총연합회, (주)차별코리아, (주)호니시스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는 2020년 1월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부설연구소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75년 이상 계속되어온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과 과제를 모색하고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소는 분단 이전과 분단 이후의 역사적 상황과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종교적 갈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회와 신학의 책임을 모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다양한 의지와 운동역량을 개발해 가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는 일에 운명을 같이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통일에 대해 기대하고, 한국교회가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화해와 일치를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바로 민족이 모이는 곳이고, 그들이 누리고 원하는 평화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고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 사역에 기여하는 일은 한민족으로 당연히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민족 통일의 새날을 위해서 한민족통일신학 연구소는 조직신학연구부, 한국교회와 사회, 한국신학연구부, 여성신학 연구부를 가지고 연구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동기는 한반도에서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과 더불어 민족 고난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박순경 교수의 서거 이후, 그의 통일신학의 길을 발견하게 된 후 민중, 여성,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그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계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거름 삼아 생명과 평화의 꽃을 피워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면면히 스며들어 있는 한민족의 삶은 곧 우리가 통일신학의 길에서 잇을 수 없는 통일 역사의 흔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故 박순경 교수 추모학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발족식에 발표된 논문과 감신대 교수들과 신학자들의 논문을 모아 박순경 교수의 통일의 삶을 기리는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2022년도 봄 학기부터 연구소주관 독서모임과 정기학술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가지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위원들은 학생들과 학술모임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풀린 2023년에는 故 박순경 교수의 탄생 100주년 행사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주최했고, 같은 해 11월에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신부를 모시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에서 함께 연구모임을 가졌던 졸업생들은 통일신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극단의 대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통일신학의 과제는 잠시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통일신학의 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더욱더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연구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통일의 희망 아래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통일의 꿈을 꾸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길 안에서 펼쳐갈 목회 현장에서는 교회를 통해 민족의 아픔과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언젠가 온전히 현장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한 신학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한국교회가 한반도 분단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평화 체제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데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한민족 통일신학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통일운동의 불을 지피려 합니다.

1) 학술회

본 연구소는 그 첫 작업으로 그동안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故 박순경 교수의 1주기 추도학술회를 시작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각 연구 분야에서 故 박순경 교수의 학문의 길을 연구해 온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였고, 다음 해 책으로 묶어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박사를 모시고 “한국교회의 통일 담론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학술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술제를 통해 통일의 실현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미 한국은 하나였다는 고백이 있으면 이미 통일은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은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가신 평화 혹은 예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준 그 평화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평화일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전쟁도 없고, 대립도 없으며 사자 굴에 손 넣고 뛰어놀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평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마치 동독과 서독이 평화를 이룰 때 구심점이 되었던 독일의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민간적 활동과 이해를 통해 하나의 한반도를 꿈꾸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연구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다.”

2) 평화성서학교

다른 사업으로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통일을 꿈꾸고 준비해가는 미래의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통일과 평화의 화두를 가지고 꿈꾸게 하는 일은 결코 포기되어서도 안 되고 멈추어서도 안 되는 신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그때가 되면 저 북쪽 땅으로 가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나아가는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세워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그 일들을 위해 매달 개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헌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복절이 있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서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일꾼을 키워가고자 하는 것이고, 북한 땅이 가까이 보이는 월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독서모임

변화해가는 세계정세부터 시작해 한국의 통일에 대한 기초조차 계속해서 변해가는 현시점에서 바르게 사회를 이해하고, 전문가들의 저서를 같이 읽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일들을 찾아가게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통일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독서모임이 아주 연약한 조직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일들은 조금씩 커져 앞

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많은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있으며,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는 후원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되어 있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최태관 연구소장과 사무총장으로서 음진우 목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故박순경 박사 1주기 추모학술회 및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발족식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 웨슬리 채플



故 原 朴 順 경
(1923.7.14 - 2020.10.24)

1부 | 발족식 예배
2부 | 추모학술회

1부

- 설교 성경하 목사 (전 감동회장)

2부

- 박순경 박사 회고 강애영 교수 (한신대 명예교수)
- 주제 강연 이문선 교수 (한국통일연구소) "한국토착화신학으로서 박순경 통일신학"
- 논찬 최순양 박사 (감신대), 신태하 목사 (보문재일교회 담임목사)
- 추모논문 발표
 - 신혜진 박사 (이화여대) "통일신학의 재구성 요건 검토"
 - 이봉서 박사 (감신대) "박순경 박사의 한반도 중립화론에 대한 가능성"
 - 서형석 박사 (연세대) "에베소서 교회는 : 서로, 함께, 하나, 통일"

주최 |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후원 | 감리교신학대학교



Youtube 링크

■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한민족과정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에서는 한민족의 통일사역을 위해 한민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19명이고 정식 M.Div. 과정에서 추가로 한민족 관련강좌를(9학점) 추가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10 사단법인 탈북민 자립지원센터

(센터장 강철호 목사)

- 창립일 : 2008. 7. 18.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200 지하1층
- 전화/FAX : 02-2607-8242 / 02-2607-8243

1) 주요 연혁

2008.7.18. 탈북민자립지원센터 개소

2009.11.18. 탈북민자립지원센터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음

2010~2013. 북한이탈주민 노인 정서안정 프로그램 실시,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실시(방문교사 학습지 지원사업,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2012.1.30. 탈북 어르신들과 남한 주민들로 이루어진 '진달래나눔봉사단' 창단

2011~2013. 매년 1~4회 음식나눔봉사 실행,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실시, 4~11월 매주 1회 반찬 및 점심 식사 제공

2008~현재. 센터는 홍익병원, 목동중앙치과, 노무법인 여명, 법무법인 코러스, 하나봉사회, 양천경찰서와 자매결혼하여 탈북민들을 준비시켜 미래의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있음

2) 설립 목적

사단법인 탈북민 자립지원센터는 탈북민들을 위한 사회문화적응, 자립자활지원, 탈북민자녀 공부방, 상호간의 정보교류 등 한국사회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8년도에 설립하여 2009년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

터 탈북민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덜고 지역사회 정착과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매년 ‘북한이탈주민 노인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재능개발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교사 학습지 지원사업과 외국어(영어,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홀몸 어르신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탈북민 어르신들과 남한 주민들로 이루어진 ‘진달래나눔봉사단’을 창단하여 매년 1~4회의 음식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사역 내용

① 북한이탈주민 노인 정서안정 프로그램

탈북 어르신을 위한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역사교실 등) 4~7월, 9~11월 매주 1회(금요일 오전 11시, 남한주민도 참여 가능), 연중 신청 받음

②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방문교사 학습지 지원사업, 원어민 외국어교실(영어, 중국어), 악기교실(피아노, 드림) 4~12월, 연중 신청 받음

③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누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반찬과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공급의 불균형을 예방함, 4~7월, 9~11월 매주 1회

4) 결연 단체

① 홍익병원 (2008년)

홍익병원과 탈북민자립지원센터는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천구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하는데 공동 협력할 것을 약정함

② 법무법인 코러스

탈북민자립지원센터와 법무법인 코러스는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천구 지역에 정착,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공동협력할 것을 약정함

③ 노무법인 여명

탈북민자립지원센터와 노무법인 여명은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천구지역에 정착,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임금체불 등 고용관계와 관련된 노동법률 상담 및 사업주들의 권인보호에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공동 협력할 것을 약정함

④ 목동중앙치과

탈북민자립지원센터와 목동중앙치과는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양천구 지역에 정착,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치아건강 증진 및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공동 협력할 것을 약정함

⑤ 하나봉사회, 하나학생봉사대 (2011년)

하나봉사회, 하나학생봉사대와 탈북민자립센터는 민족애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탈북 청소년 교육을 위해 적극 참여함을 협약함



〈 감리회 탈북민 교회, 탈북민 선교 교회/기관 후원 안내 〉

번호	구분	교회 / 기관	후원계좌
1	탈북민 교회	새터교회	신한은행 140-008-850312 새터교회
2		향연교회	우리은행 1005-003-521602 향연교회
3		예수새민교회	국민은행 502901-01-348505 예수새민교회
4		여명교회	농협 351-1204-9253-83 여명교회
5		실만한물가교회	신한은행 100-036-052472 실만한물가교회
6		예수마음교회	농협 301-0315-2163-81 예수마음교회
7		회령교회	농협 301-0321-6999-01 기독교대한감리회 회령교회
8	탈북민 선교 교회 / 기관	안성제일교회	농협 237135-55-000185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성제일교회
9		인천평화교회	국민은행 210701-04-134020 인천평화교회
10		은암선교교회	국민은행 331-01-0026-140 은암선교교회
11		디딤돌 봉사회	농협 351-1207-8774-33 진천디딤돌봉사회
12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농협 301-0096-5548-01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13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수협 1010-2280-7851 북한회복감리교회연합
14		하늘꿈학교 사단법인 좋은씨앗	국민은행 331301-04-096542 사단법인좋은씨앗
15		사단법인 하늘우산	국민은행 813001-04-068962 (사)하늘우산
16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우리은행 1002-760-917973 최태관
17		사단법인 탈북민 자립지원센터	신한은행 140-008-850312 새터교회